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6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8.27~2025.09.03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기초자치단체(개편/설립/구역), 청년, 투자, 혁신, 탄소중립
경제·관광	소상공인, 상승, 기반, 생산, 청년
지역·사회	꽃자왈, 폐기물, 불법, 구속, 학생

※ 분석 기간 : 25.08.27.~25.09.03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개 편/설립/ 구역)	- 행정구역 개편 도민 여론조사 결과 - 개편안 둘러싼 정치권 갈등 심화 -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 사실상 무산
	청년	- 제1회 제주청년대상 수상자 선정 - 청년 주거 및 금융 지원 확대 -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 기반 마련
	투자	- 제주 투자전략 서밋 개최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운용사 선정 - 제주 토종 종자기업 80억 투자 유치
	혁신	-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확정 -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덱스터' 개소 - 미래 모빌리티 협의체 'NUMA' 합류
	탄소중립	- 전국 최초 RE100 축산물 생산 성공 - 에너지특보 임명 및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 추자 해상풍력 사업 단독 응찰로 재공모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소상공인	- 소상공인 체감 경기 뚜렷한 회복세 - 소상공인 낮은 5년 생존율과 폐업 현황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판로 확대 지원
	상승	- 기업 및 소비자 심리지수 동반 상승 - 먹거리 중심의 소비자 물가 상승 - 제주 드림타워 월 매출 기록 경신
	기반	- AI 기술 기반 금융 및 공공 혁신 - 데이터 기반 농업 디지털 전환 추진 -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구축
	생산	-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본격화 - 제주 농축산물 생산 현황 및 과제 - 국내 최초 'RE100 우유' 생산 성공
	청년	- 청년 인구 유출 및 저출산 문제 심화 -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 청년 금융 부담 완화 및 교육 지원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곶자왈	- 도유지 곶자왈 개발 논란 - 곶자왈 내 불법 폐기물 투기 - 시민 참여 곶자왈 보전 운동
	폐기물	- 석재업체 대규모 불법 매립 - 드라마 촬영팀 쓰레기 무단 투기 - 해양 선박사고 잔해 방치
	불법	- 불법 체류자 제주 무단이탈 -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영업 - 도로 위 불법 노상 적치물
	구속	- 여성 활동가 2명 법정 구속 - 스포츠 역베팅 사기 조직원 구속 - 서귀포시장 흥기 위협범 구속
	학생	- 제주 농어촌유학 시범 운영 -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 개선 - 학생 참여 교육 정책 및 활동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8월 27일~9월 3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090건임
 - 정치·행정 분야 495건, 경제·관광 237건, 지역·사회 358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기초자치단체(개편/설립/구역), 청년, 투자, 혁신, 탄소중립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개편/ 설립/구역)	- 행정구역 개편 도민 여론조사 결과 ·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행 제주시·서귀포시 체제를 유지하는 '2개 구역' 선호도가 40.2%로 나타남. 이는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3개 구역'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선호도 28.4%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나, 공론화 결과와 다른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 개편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를 고려해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로, '2026년 7월 신속 도입' 의견 23.0%를 크게 앞섬. 이는 행정구역 논란과 복잡한 절차 속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함
-------	--------------------------	--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개편/ 설립/구역)	- 개편안 둘러싼 정치권 갈등 심화 · 이번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 김한규 의원, 이상봉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엇박자 행보가 도민 사회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함. 당리당락에 따른 혼선으로 중대한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함 · 제주도의 '3개 구역' 추진안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2개 구역' 법안, 그리고 도의회의 독자적 여론조사까지 이어지며 민주당 내에서도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함.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단일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 투표 등 후속 절차의 동력이 약화됨 -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 사실상 무산 · 행정구역 단일안 마련 실패와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지연으로 인해 오영훈 도정이 목표로 했던 '2026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짐. 이에 따라 출범 시기를 2027년이나 그 이후로 조정하는 출구 전략 모색이 불가피해진 상황임 · 오영훈 지사는 오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논란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임.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은 여전하나, 행정구역 수와 도입 시기에 대한 원점 재논의 수준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청년	- 제1회 제주청년대상 수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주청년대상'을 제정함. 혁신역량, 도전정신, 사회기여, 특별공로 등 4개 부문에서 첫 수상자를 선정하여 청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함 · 특별공로 부문에는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오예진 선수가 선정됨. 이 외에도 청년농업인 지원, 장애를 극복한 소설 출간, 청년 정보 플랫폼 창립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이원재, 곽현주, 고시연 씨가 각각 수상자로 결정되어 오는 20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임 - 청년 주거 및 금융 지원 확대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 대상 '3만원 주택' 2차 모집을 실시함.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 ·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2.0'을 출시하여 기존 상품보다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대환대출 기능을 신설함. 재직기간 요건을 1개월로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춰 금융 취약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도내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2025 제주 청년사회경제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함. 주거, 노동, 건강, 삶의 질 등 12개 부문 71개 항목에 걸쳐 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제주시가 AI 등 신산업 분야 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주도가 청년

정치·행정	청년	자율예산 사업으로 금융 클래스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고 있음
	투자	- 제주 투자전략 서밋 개최 · 제주도가 스위스, 독일,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기업 CEO 및 투자자문관 50여 명을 초청하여 '제주 투자전략 서밋'을 개최함.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을 알리고 신산업 분야의 해외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임 ·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실질적인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운용사 선정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1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운용사로 선정됨. 정부, 민간기업, 재일교포 등이 공동 출자한 펀드로, 제주의 초격차·글로벌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 혁신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임 · 특히 이번 펀드는 재일제주인들이 기부가 아닌 투자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함. 투자 수익의 일부는 재일동포 학교와 제주지역 학교에 기부될 예정으로, 지역과 글로벌을 잇는 상징적인 상생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임 - 제주 토종 종자기업 80억 투자 유치 · 제주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인 채소종자 개발 기업 '(주)제농S&T'가 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함. 제주 토종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투자금은 R&D 강화, 해외시장 개척, 재무구조 개선 등에 투입될 예정임. 이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상장기업 육성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주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함
	혁신	-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확정 · 제주도가 '청정제주 미래먹거리, 글로벌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함. 2029년까지 총 3137억원을 투입하여 상장기업 육성, 수출 증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제주형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 특화자원 활용 신식품 개발, 스마트제조 표준화, 외식·푸드서비스 고도화 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함. 이를 통해 제주 청정 농산물과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농업과 지역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동력을 확보할 방침임 -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덱스터' 개소 · 제주도와 KOTRA가 협력하여 디지털 기반 무역 지원 사무소인 '덱스터(deXter)'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개소함.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지원받아 해외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함 · 수출상품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등록,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

정치·행정	혁신	AI 활용 무역 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자생적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미래 모빌리티 협의체 'NUMA' 합류 · 제주도가 정부, 지자체, 현대차·네이버 등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미래 모빌리티 협의체 'NUMA(Next Urban Mobility Alliance)'에 합류함. AI 기반 교통문제 해결, 자율주행 실현,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 민·관·연 협력을 본격화함 · 이번 협력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주형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도시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버스 등 실증사업을 검토하며 제주의 미래 교통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임
	탄소중립	- 전국 최초 RE100 축산물 생산 성공 · 제주도가 지난해 RE100 달걀 출시에 이어, 유제품 생산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에 100% 재생에너지를 적용한 'RE100 우유'를 전국 최초로 생산하는 데 성공함. 이는 제주 축산분야 탄소중립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중요한 성과임 · 제주도는 RE100 인증 농가에 생산시설 설치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며 친환경 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2030년까지 도내 RE100 인증 축산사업장을 66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에너지특보 임명 및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 제주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영환 전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을 에너지특보로 임용함. 전력계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신임 특보는 추자해상풍력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함. 이를 통해 제주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추자 해상풍력 사업 단독 응찰로 재공모 ·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한국중부발전만이 단독으로 응찰함.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한 달간 재공모 절차가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 국내외 여러 기업이 관심을 보였음에도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는 1300억원 수준의 도민 이익공유금과 2GW가 넘는 발전량을 제주 전력계통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됨. 향후 재공모 시 사업 조건 조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소상공인, 상승, 기반, 생산, 청년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소상공인	- 소상공인 체감 경기 뚜렷한 회복세 · 여름 성수기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로 제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8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BSI)에 따르면, 체감 BSI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동반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냄 · 정부 지원 증대, 매출 증대, 계절적 성수기 요인이 경기 호전의 주된 이유로 분석됨. 제주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과 소비 촉진 행사의 결과로 평가하며, 9월 경기 전망 또한 긍정적인 상황임 - 소상공인 낮은 5년 생존율과 폐업 현황 · 2018년 창업한 제주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40.3%에 그쳐, 5곳 중 3곳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냄. 특히 창업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비율도 30%에 육박하며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명확히 보여줌 · 폐업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가장 컸으며, 경쟁 심화와 매출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연 매출 20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체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 또한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판로 확대 지원 ·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생 튜터가 온라인 마케팅 등을 돕는 민관학 협력 지원사업 시작. 대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고, 소상공인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및 카카오톡 비즈니스 활용법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받음
-------	------	---

경제·관광	소상공인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된 '9월 동행축제'에 제주 향토 소상공인 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판로 확대 기회를 모색함. 제주도는 택배비 지원 및 온라인 구매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 판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도움
	상승	- 기업 및 소비자 심리지수 동반 상승 · 제주지역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5개월 연속 동반 상승하며 뚜렷한 개선 흐름을 나타냄.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CCSI) 또한 4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됨 · 관광 경기 개선이 비제조업 회복을 주도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 역시 소비 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먹거리 중심의 소비자 물가 상승 ·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되었으나,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는 강세를 지속하며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킴. 8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하며 1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함 · 폭염 등 이상기후 여파로 신선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도 높은 오름세를 보임.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성수품 공급 대책 및 할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제주 드림타워 월 매출 기록 경신 ·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8월 총 59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월간 최고 매출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경신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1% 급증한 수치로, 호텔과 카지노 양대 부문 모두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제주 관광 시장의 회복을 증명함 · 호텔 부문은 역대 최대 객실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카지노 부문 역시 테이블 드롭액과 이용객 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이러한 매출 고공 행진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기반	- AI 기술 기반 금융 및 공공 혁신 · 제주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ERP뱅킹 사업의 차별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에 속도를 냄. 이는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가속화 전략과 연계하여 AI Agent 서비스를 통한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함 · 제주도가 AI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함. 이 시스템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여 도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주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이다 - 데이터 기반 농업 디지털 전환 추진 · 농민이 영농 데이터를 직접 기록하고 공유하는 '제주DA 파트너스'가 공식 출범함. 200여 명의 농민이 참여해 노지감굴, 월동무 등 4대 작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며 자율적 수급 조절과 경영 개선을 도모함 · 제주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통합 플랫폼 '제주DA'는 34종의 농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정책과 현장 경영에 활용함. 이는 과학 영농을 실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됨

경제·관광	기반	-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 구축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1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어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짐. 특히 재일제주인 자금이 출자에 참여하고, 투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함 · 펀드는 제주의 10대 초격차 분야 및 글로벌 진출 유망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임. 공동 운용사인 세븐스타파트너스의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상장을 적극 지원하며 제주의 글로벌 창업 허브 도약을 뒷받침함
	생산	-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본격화 ·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형 공공주도 사업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정부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최종 선정됨. 총 59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전국 풍력발전기를 실시간 관제하는 '두산윈드파워센터'를 제주에 개소함. 이는 제주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임 - 제주 농축산물 생산 현황 및 과제 · 제주산 신품종 당근 '탐라홍'이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 공급되어 수입 종자 의존도를 낮추고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탐라홍'은 제주 월동재배에 적합하며 높은 당도와 우수한 식감으로 경쟁력을 갖춘 · 노지감귤은 전반적으로 생육 상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나, 고온 건조한 날씨로 볼록총채벌레 개체 수가 급증하여 상품성 저하가 우려됨. 이에 농업기술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 단위의 동시 방제를 당부함 - 국내 최초 'RE100 우유' 생산 성공 · 제주에서 생산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RE100 우유'가 전국 최초로 출시됨. (주)제주우유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 유일의 RE100 우유 생산 자격을 획득함 · 이는 RE100 계란에 이은 성과로, 제주가 축산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제주도는 RE100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인증 사업장을 66개소로 늘려 친환경 축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청년	- 청년 인구 유출 및 저출산 문제 심화 · 지난 30년간 제주 출생아 수가 60% 이상 급감하고, 28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함. 합계출산율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감소 폭이 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며, 청년층의 지속적인 순유출이 이어짐 · 인구 자연감소는 4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 폭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임. 이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청년층을 유인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 제주시는 AI 등 신산업 분야 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준비 청년들의 산업 이해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함. 마이크로소프트 등 첨단 기업을 방문해 현직자와 소통하고, 'AI 페스타' 참관을 통해 미래 산업 트렌드를 직접 체험

지역·사회	꽃자왈	· 환경단체는 제주도가 꽃자왈 보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도유지 꽃자왈을 개발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함. 꽃자왈 보전의 주체인 행정의 개발 논리를 앞세워 책임을 저버리고 있으며, 도유지를 보존용 재산으로 관리하는 등 진정성 있는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꽃자왈 내 불법 폐기물 투기 · 제주시 조천읍 꽃자왈 일대에서 환경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냉장고, 폐타이어 등 대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다량으로 불법 투기된 사실이 확인됨.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동백동산' 인근 도로에서도 무단투기가 발견되어 생태계 오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음. · 불법 폐기물 투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행정의 조치는 일회성에 그쳐 재발 방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꽃자왈사람들은 제주시와 제주도에 전수 조사 및 전량 수거, 근본적인 제도적·행정적 대책 수립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요구함. - 시민 참여 꽃자왈 보전 운동 · (사)꽃자왈사람들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꽃자왈 보전을 위한 국민신탁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참여 행사인 '우리 힘으로 지키는 꽃자왈'을 개최함. 이는 사유지 꽃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의 마무리 행사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 · 행사에는 꽃자왈 워킹 챌린지, 아나바다 장터, 생태놀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마련됨. 행사 참가비와 기부금 전액은 꽃자왈 사유지 매입 기금으로 사용되며, 기부자 이름은 기념비에 등재하여 꽃자왈 보전에 동참한 기록을 영구히 남길 예정임
	폐기물	- 석재업체 대규모 불법 매립 ·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1만 3000톤을 3년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석재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됨. 이는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장장, 중장비업자, 토지 소유주 등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조직적 범죄로 드러남 ·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주말을 이용해 약 8.5m 깊이로 폐기물을 파묻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모의하고 흙으로 현장을 덮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함. 자치경찰은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닌 환경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 의지를 밝힘 - 드라마 촬영팀 쓰레기 무단 투기 ·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 제작팀이 제주시 애월읍 죽은노꼬메오름 인근 공유지 숲에서 촬영 후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떠나 논란이 됨. 한 시민이 SNS에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음 · 제작팀은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현장을 정리했으나, 무단 투기 사실 자체가 인정됨에 따라 행정당국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임. 이번 사건은 촬영 편의 뒤에 감춰진 환경 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됨

지역·사회	폐기물	- 해양 선박사고 잔해 방치 · 지난 2월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선박의 잔해가 반년이 넘도록 완전히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문제가 됨. 선박 파편, 전선, 배터리 등 각종 쓰레기가 조류에 의해 광범위하게 퍼져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해녀들의 조업 활동에 큰 위험을 초래함 · 사고 해역은 수심이 얇고 조류가 강해 대형 장비를 동원한 수거 작업에 어려움이 큼. 환경단체는 전문 다이버 등 인력을 활용한 수중 정화 활동이 시급하다고 제안하며,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수거 작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함
	불법	- 불법 체류자 제주 무단이탈 ·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이 위조된 영주증을 이용해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도외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구속됨. 이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불법 행위 사례로 확인됨 · 피의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90만 원을 주고 위조 영주증을 구입했으며, 전남 무안의 새우 양식장에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약속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힘 -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영업 · 우도에서 한 업체가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전동카트(골프카) 27대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사실이 적발됨. 이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다수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확인됨 · 제주도는 해당 업체 대표를 여객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세금 탈루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안전시설이 미흡한 골프카가 공공도로를 운행할 경우 인명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도와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섬 - 도로 위 불법 노상 적치물 · 제주시 도심 이면도로 곳곳에 주차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물통, 화분, 의자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불법 노상 적치물이 만연하여 시민 불편을 가중시킴.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심화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관련 민원 신고가 3만 건을 넘었으나, 행정의 단속 인력 부족과 적치물 주인의 강한 항의로 계도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행정시는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충과 시민 의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됨
	구속	- 여성 활동가 2명 법정 구속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여성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이는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 항의 기자회견 중 호송 차량을 막아선 행위에 대한 판결임

지역·사회	구속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 직권남용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판단, 이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함. 시민사회단체 역시 사법정의를 촉구하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음 - 스포츠 역베팅 사기 조직원 구속 · 제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스포츠 역베팅' 사기 조직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됨. 이로써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인원은 총 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다단계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42명, 피해액은 234억 원에 달하며, 불과 몇 달 만에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경찰은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서귀포시장 흥기 위협범 구속 ·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자전거 접촉 시비 끝에 50대 관광객 2명을 흥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됨. 피의자는 관광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 식당에서 흥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 경찰은 피의자에게 비슷한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신속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짐
	학생	- 제주 농어촌유학 시범 운영 · 제주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제주 농어촌유학'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이는 타지역 도시 학생들이 제주의 소규모 농어촌 학교로 전학해 교육과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은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음 · 올해는 서울 등 7개 시도에서 31가구 49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도내 8개 초등학교에서 생활을 시작함. 참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제주의 자연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여유로운 교육 환경과 다양한 체험활동에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며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 개선 · 제주 고등학교의 전통적인 백호기 축구대회 응원 문화와 관련하여 학생 참여 강요 및 불참 학생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미비 등의 진정이 제기됨.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인 인권침해는 확인되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음 · 그러나 인권위는 오랜 기간 이어진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응원 문화가 학생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제약해왔다고 지적함. 이에 교육청과 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응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불참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학생 참여 교육 정책 및 활동 ·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차기 교육 정책으로 '인성교육 강화'와 '맞춤형 진로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꼽음. 이는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	학생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대정여고와 국제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4·3 다크투어리즘, 해녀 문화 보존 등 지역 현안을 탐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침. 이는 학생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받음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